

국 / 제 / 뉴 / 스

AMD, 테라플롭 컴퓨팅 플랫폼 선봬

AMD가 1초당 1조회 이상의 연산할 수 있는 서버 플랫폼을 선보였다.

AMD는 테라플롭(teraflop) 컴퓨팅 장벽을 깨트린 가속화 컴퓨팅(Accelerated Computing) 플랫폼인 '테라플롭 인 어 박스(Teraflop in a Box)' 시스템을 6일 공개했다. 이번에 AMD가 공개한 가속화 컴퓨팅 플랫폼은 듀얼 코어 AMD 옵테론 프로세서 및 차세대 AMD R600 스트림 프로세서 두 개가 탑재됐으며 MS윈도 XP 프로페셔널 표준 버전으로 구동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윈도XP 프로페셔널 운영 체제하에서 일반적인 누계(multiply-add) 방식 연산을 사용해 초 당 1조회 이상의 부동 소수점 계산이 가능하다. 이는 초당 1천억 회 정도의 연산이 가능한 오늘날의 고성능 서버플랫폼에 비해 열 배 이상의 성능이다.

AMD는 이 같은 테라플롭 컴퓨팅 시스템이 과학, 의학, 비즈니스를 비롯해 일반소비자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멘스, '플래시 OFDM+GSM' 기지국 통합기술 첫 선

지멘스 네트워크가 유럽형이동전화(GSM)와 무선 모바일 데이터 통신 서비스 기술인 플래시 OFDM을 하나로 통합하는 서비스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지멘스 네트워크는 지난 3일 말레이시아 파항주의 오지마을인 페칸에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Digital Lifestyle Awareness Showcase)'를 갖고 나노 GSM 기지국과 플래시 OFDM을 결합해 IP를 통해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을 전송하는 통합 서비스를 시연했다. 앞으로 지멘스는 현지 통신사업자인 텔레콤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플래시 OFDM과 GSM 서비스를 통합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압둘라 아흐마드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는 "GSM과 플래시 OFDM 통합 기술사용으로 유선 네트워크 연결이 힘든 산골 오지 지역과 도시지역간 보다 쉽고 빠르게 인터넷과 기타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멘스측은 "플래시 OFDM을 전송매체로 활용하고 나노 GSM 기지국과 기지국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혁신기술을 통해 고품질의 GSM 커버리지와 처리능력을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산골 오지지역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플-시스코, 아이폰 상표 분쟁 '종지부'

애플과 시스코 사이에서 벌어졌던 '아이폰' 상표권 분쟁이 전격 타결됐다.

2월21일 블룸버그 및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과 시스코 양사는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사는 또 상표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양사는 자세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양사의 분쟁은 지난 1월 애플이 맥월드에서 '아이폰' 출시를 공식화하자, 시스코가 자사의 무선 인터넷 전화 상표인 '아이폰'과 브랜드명이 동일하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분쟁 초기, 양사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법적인 해결보다는 협상 쪽에 무게를 두면서 물밑 접촉을 진행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CSR, 썬코프의 와이파이 휴대폰에 자사칩 공급

CSR은 2월20일, 자사의 VoWiFi 칩셋인 유니복스가 썬코프테크놀로지스의 1세대 와이파이 휴대폰에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썬코프가 내놓은 와이파이 휴대폰은 SIP기반의 가정용 전화로, 기존 DECT폰에 가까운 통화음질을 유지하면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구축된 지역에서 VoIP 기능을 지원한다.

이 제품은 모노 디스플레이버전과 하이엔드 1.8인치의 컬러 디스플레이 버전 두 제품이 출시된 상태로, 지난 2007년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3GSM 박람회에 참가한 CSR의 전시 부스에서 이 폰을 이용한 VoWiFi 서비스가 시연된 바 있다.